광릉 국립수목원으로 오라

광릉수목원

이학영 / 시인

푸르름이 여기 즐비하게 늘어서
그대에게 손짓하고 있나니
금강초롱 앞길 밝혀
뻐꾹나리 하늘대며 몸짓하고
계수나무 여러 나무 반기는 곳
광릉숲으로 오라

큰 숨을 들이키고 내어 보라
꽃바람 방울방울
솔향기 너울너울
새 힘으로 어려지는 허파 속 꽈리가
부풀어 오를지니
오백사십여년 전 조선 땅을 감돌던
기상이 그 숨결이
오색딱따구리 부리 결로 전해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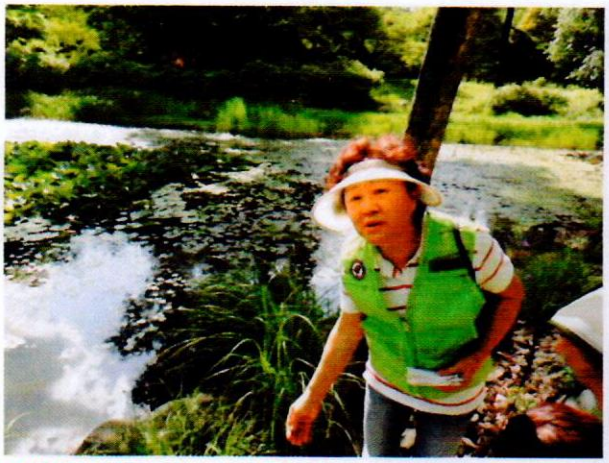
장수하늘소 으뜸 품새 숨기고
크낙새 크나큰 낙이 명맥 잇고자
겨우 남은 생태다양의 보고.

세계로의 명성 가지를 뻗어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빛나니
이 대자연에 깃대고 살아가는
오천팔백 종 생명에 찬사를 표하러
그대여 한발짝
광릉수목원으로 들어오시라

수목원 이정표 필자와 학생들의 제 1탐사지는 수생식물원이지만 그 외에도 배울 거리가 참으로 많은 곳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하루 이틀로는 이곳에서 제대로 된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울 정도. 시간에 얽매여 산림동물원. 온실 등 주요 시설은 다음 학기 심화수업 회차에 다시 들르기로 하는 아쉬움을 심고 왔다.

원앙이 둥실 수목원을 가로 지르는 하천은 물이 맑다. 이곳에는 참갈겨니 등의 민물고기가 살고 있어 이를 사냥하려는 새들도 우글거린다. 마침 먼 거리에서 무리를 지어 물에 떠도는 원앙새를 줌으로 당겨 보았다. 이들은 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치는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고려대 수생 힘! 수생태해설사 9기생 일동이 수목원 내 수생식물원 앞에 모여 기념 촬영을 하였다. 수생식물원은 면적 0.1ha로 한반도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국에서 물가나 물속에 자생하는 식물을 옮겨 놓은 곳이다. 이곳에는 수련, 부들, 가래, 마름 등 일반적인 식물과 조름나물, 독미나리 등 희귀식물을 포함 모두 50과 204종이 자라고 있어 한국의 수생태계 식물을 일견할 수 있다.



수생식물 전문해설사 노승옥 박사 고려대 수생 9기중 면학열기가 가장 모범인 노승옥 수생은 이화여대 출신 간호학 박사로 대학에서 간호학 교수로 오랜 동안 후학을 가르쳐온 분이다. 마침 집 인근에 광릉수목원이 있어 이번에 수생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맡아 열공을 하여 척박한 수생식물학 분야의 선구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광릉생명과학연구소 광릉수목원 인근에 위치한 고려대 수생태 원생인 노승옥 박사가 소장으로 있는 본 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인 부군 이철호 박사의 특강을 듣고 있는 필자와 학생들. 이곳은 부부 학자가 20여년 공들여 각종 식물을 식재하여 많은 배울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다. 고려대 교수로 봉직하다 정년퇴임한 이철호 박사께서는 필자의 고려대 ROTC 선배(5기)로 당일 가든파티. 수목원 연구자료실 개방 주선 등 많은 도움을 주셨다.

2015년 5월 20일 필자는 고려대 수생태 정규수업의 일환으로 원생들을 인솔하여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국 최고의 광릉수목원을 찾았습니다. 마침 바로 인근에 광릉생명과학연구소를 운영하는 원생 노승옥 박사가 있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고 수목원 탐사와 더불어 본 연구소에서의 특강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광릉수목원은 '관상가치가 높은 나무를 모아 배치한 관상수원, 꽃이 아름다운 나무를 모아 전시한 화목원, 습지에 생육하는 식물을 모아놓은 습지식물원 이외에도 수생식물원, 약용식물원, 식용식물원, 관목원, 덩굴식물원, 손으로 보는 식물원, 외국수목보존원, 고산식물원, 난대식물원 등으로 구성되어' 필자 일행과 같은 학술인들에게는 일 년에 적어도 1회 이상은 필수로 답사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숲해설사이자 고교 교장 출신 이학송 수생이 당일 현장 탐사 수업 후기를 제출함에 이를 여기에 소개하여 그의 학식이 높음을 높이 칭송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생물표본관을 견학하였다. 동 · 식물 표본 86만점을 소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2020년까지 100만점 수장 목표를 갖고 있다 한다. 2003년에 목재로 지어진 표본관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남다른 소방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하나 실용면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표본관 로비 중앙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는 이창복(식물), 박규택(곤충), 이우철(식물) 세 학자분의 사진이 있다. 우리

광릉수목원 입구에 선 필자 국립수목원 관람은 사전에 예약해야 가능하다. 하루 제한 입장 인원은 화-금요일은 5,000명, 토요일 및 공휴일은 3,000명으로 숫자를 엄격히 정해 놓고 있다. 이는 이곳의 귀중한 자연 생태를 인간 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자구책임을 이해하자.

곤충학자 김일권 박사 국립수목원에서 기생벌 등 곤충을 연구하고 있는 김 박사가 우리 원생들을 위하여 각종 표본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삼림 자연생태계를 소개하고 있다. 왕과 장수라는 말이 들어가는 곤충만을 모은 표본을 보이며 재미난 해설을 곁들이는 이 분에게서 멋진 딱정벌레의 이미지가 푸드득 맑은 소리로 솟아났다.

일행을 안내한 김일권 박사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흰현호색 표본 등 몇 가지 식물 표본과 광릉에서 사는 곤충류 등을 처음 보았다. 특히 기생벌 표본은 충격적이었다. 1cm 이하 극히 작은 미세한 곤충인 기생벌에 얽힌 이야기들은 고정관념을 벗게 하는 신선한 내용이어서 모두 감탄하였다. 세상 곳곳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각 분야의 숨어있는 고수들이 이렇게 활약하고 있음을. 우리 수생들은 동물 표본 박제 등에 관심 많았지만 수많은 식물 표본과 그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이곳 연구원들이 존경스럽다.
광릉수목원에는 많은 형태의 작은 수목원이 있지만, 우리 수생들은 수생식물원에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했다. 한반도 모양을 딴 수생식물원 연못에는 마침 남개연 노란 꽃이 한껏 피어있었다. 이학영 교수님의 현장강의와 노승옥 수생님의 보조 설명 등으로 알찬 시간을 보냈다. 전국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수생식물을 모아 놓은 수생식물원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소중한 곳이다. 물속의 붕어말도 함께 동정하고 다양한 사초들을 확인하였다. 네가래 앞에서 교수님의 열강이 이어졌다. 물속의 행운 네잎 클로버인 네가래는 생태적 보물이라는 설명과 함께.
처음 보는 소귀나무, 낙지다리, 산둑사초, 질경이택사 등 눈길을 한시도 물가에서 떼지 못한 수생들은 넘치는 공부에 행복이 가득했다. 물 가운데 멋지게 핀 남개연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물속에 논우렁이. 북방산개구리, 아시아실잠자리 유충 등 수생물도 만나는 알찬 수업이었다. '개쉽싸리' 푯말 앞에서 몇몇 수생들은 웃으며 재미있어 했지만 나는 잠시 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게 쉽사리 떠날 줄은, 떠날 줄 몰랐는데…' 노랫말 가사처럼, 너무나 쉽사리 이 세상을 떠난 사람 생각이 나서였다.
나오는 길에 계수나무 군락에서 세월의 힘을 느끼며, 백당나무의 헛꽃과 참꽃을 보며 우리네 인생도 헛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 털괴불나무의 빨간 하트모양 열매, 저녁 식사를 위해 물가를 찾는 물오리류 가족의 모습에 평화를 느꼈다.

광릉생명과학연구소
이철호 박사님과 노승옥 박사님(수생)께서 이십여 년 동안 일궈낸 본 연구소는 수목원 자락에 있어 생태적으로 연계된 공간이다. 고려대 수생 탐사단을 위해 가든파티를 마련하고 특강을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북풍한설을 막기 위한 측백나무 울타리와 동쪽의 실개천, 정원의 나무, 꽃, 온실의 식물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져 있다. 측백나무 울타리 한가운데 관측병처럼 우뚝 선 회화나무는 허리쯤에 풍상을 겪은 상흔이 가득 있는데 이는 겨울철 찬바람을 막아내며 생긴 훈장이라 한다.
연구소 중앙에 단정한 모습의 마가목은 흰 꽃과 열매를 동시에 보여주며 방문객을 압도한다. 입구의 인동은 아치형 문을 만들고 있다. 층층나무와 느티나무, 온실 뒷편의 오가피나무, 두충나무 군락지, 전나무, 계수나무, 구상나무 등이 능소화, 으아리, 목단 등과 잘 어우러져 있다. 온실 안에는 무화과나무 10여 주와 한창 꽃이 만발한 석류나무, 동백, 차나무, 감귤나무 등이 어울려 아열대 정원의 맛을 연출하고 있고. 중앙에는 라벤다 보라색꽃이 하늘거리며 로즈마리, 애플민트 등 온갖 허브류 꽃들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프랑스에서 들여온 와인용 포도나무는 청포도 몇 다발 씩 영글어 가고 있다. 지하 저장창고와 연구실, 온실 주위를 자상하게 설명해준 덕분에 새로운 지식을 가득 담은 수생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어린다. 옆 실개천은 고마리, 엉겅퀴, 애기똥풀, 환삼덩굴 등이 어울려 있고 유해식물인 단풍잎돼지풀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떠날 때 우리 수생 모두에게 로즈마리, 박하, 민트 등을 선물하고 허브향, 허브 비누 등 아낌없이 한보따리 가득 안겨준 두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Lw

이학송 (수생 9기) 후기 중에서

글 · 이학영/고려대 평교원 생태학교수/이학박사

이학영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생태해설사 과정 이학영 지도교수는 ROTC 16기 (고려대)로 생태학을 전공한 이학박사이다. 호는 상감이며 문학가이기도 하다. 한국생태환경연구원 원장, 한국수생태학회 회장, 한국생태환경문학회 회장, 한국하천협회 임원, 문예창작 교수(시인, 아동문학가, 평론가), 백일장 및 등단 작가 심사위원, DMZ학술조사위원, 국토해양부 자문위원. 환경부 생태학술조사위원, 전국대학 특강초빙교수, 고려대교우회 상임이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KBS 등 TV 등 방송매체 출연도 100회 이상이며 2009년에 하천생태복원 학술연구 공로로 국토해양부장관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한중일기본한자〉, 〈하늬와 함께 떠나는 물고기 여행〉, 〈내린천 민물고기〉, 〈수생태학초론〉 등이 있다.
강의 원고 문의 Mobile : 010-3274-7282 E-mail : rhiys@hanmail.net
(시, 생태칼럼 등 각종 원고 및 환경생태, 교양강좌 등)